

지 상 범 석

죄를 지을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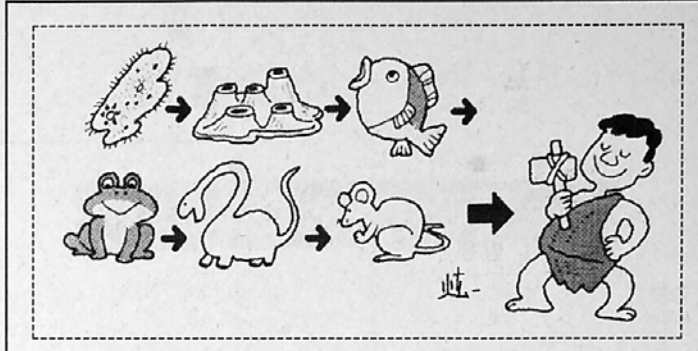
“극락갈 수 있는 도리는 부처님의 끝없는 위신력을 믿고 가르침을 깊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신라 원효대사 아랍니까. 원효대사에게 어느날 한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열반에 들면 다시 태어나 중생을 제도하겠지요” 하니 원효스님은 손을 흔들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으니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5계를 지켜야 하는데 나는 요석공주와 관계를 가져 열성을 낳았으니 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또 불교입니다. 실제로 교도소에 가도 불교신자가 제일 적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재범률도 가장 낮습니다. 원효대사의 극락가는 법을 듣고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법당에도 오지도 않습니다.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은 긴가 민가 할 것 입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런 뜻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극락일 겁니다.

돈독했던 조정승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공부도 하고 와서 중국물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조정승을 사신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조정승은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도 안 갈수 없고해서 가다가다 함경도 시흥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게 됐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사탕을 쓰고 승복을 입은 세스님이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승님. 신표를 가지고 가시면 무사히 돌아올수 있습니다” 하는 것

망나니가 춤을 추고 칼을 휘둘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다. 쟁그렁하며 칼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기를 세번 했는데 세번 모두 부러졌습니다. 이것을 보고있던 중국황제가 깜짝놀라면서 황금과 비단을 선물하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중국과의 대화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무사히 귀국하여 다시 함경도 시흥땅을 거쳐오게 됐는데 고을 사람들이 모두 굽게 처러입고 주막뒤로 올라가는 겁니다. 조정승도 올라가보니 그날이 세 돌부처님을 모신 법당이 완공되는 날이었습니다. 조정승은 부처님께 삼배해야지 하며 절을 하려는데 돌부처님 목에 칼자국과 핏자국이 나있는 겁니다. 황금이 고을 원님을 불러 물으니, 어느날 갑자기 쟁그렁 소리가 나며 세돌부처님이 차례로 목에 자국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가만히 조정승이 생각해보니 자기가 죽으려던 날과 일치하였음을 알고 깜짝놀랐습니다. 세 돌부처님이 대신 칼에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신력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위신력을 겪어보지 않



최초의 생명은 바다 속에서 생겨났다고 생각된다.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희박하였으므로,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오존층이 없었다. 따라서 태양에서 오는 강력한 자외선은 여과되지 않고 지상에 도달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생명체는 바닷물 속에서 생겨났고, 그 이후에 탄소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이 나타나 산소를 충분히 만들어 오존층이 형성된 다음에 육상생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화석으로 알려진 최초의 생명체는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퇴적암층에서 발견되었고, 이로부터 최초의 생명은 약 35억년 전에 탄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남조식물과 비슷한 것이라고 한다. 남조류가 만들어 낸 산소는 오랜 기간 동안 지구 대기중에 축적되고, 이 산소에 의하여 성층권에 오존층이 형성됨으로써 태양에서 오던 강력한 자외선이 차단되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 1억5천만년 전을 정점으로 전성기를 누리다가 7천만년 전에 멸종되었다. 조류는 1억4천만년 전에 나타나며, 꽃식물이 번성한 것은 1억2천만년 전이다. 포유류는 2억년 전에 나타나지만, 번성하게 된 것은 공룡의 시대가 끝난 6천만년 전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영장류가 등장한다. 인류의 조상으로서 가장 오래된 라마피테쿠스의 화석은 1천2백만년 전의 지층에서 발견되며,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하빌리스는 3백50만년 전에 나타난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상의 역사가 너무 긴 기간을 다루는 것이므로, 생명의 35억년 역사를 1년이라는 기간으로 환산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1월 1일에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한다면, 원생동물은 7월 말에, 해면동물은 10월 초에, 어류는 11월 20일에, 양서류는 11월 말에, 파충류는 12월 초에, 포유류는 12월 10일 경에 각각 등장한다. 공룡이 멸종한 것은 12월 25일 쯤이며, 현생 인류의 조상은 12월 31일 오후가 되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양행진 생명진화

苦海를 건너려면 믿음으로 ‘부처님 배’에 타야

그러자 젊은 스님은 다시물었습니다. “그러면 천당에 가실겁니까” 하니 원효스님은 “사람도 못되는 주제에 천당은 어떻게 간다는 말이나” 하는 것입니다. 젊은 스님은 고개를 가우뚱 하며 “그런 지옥에 가신단 말입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원효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극락에 가느니라.” 젊은 스님은 깜짝놀라 “인간도 못되고, 천당도 못가면서 어떻게 극락에 간단말입니까” 하니 원효스님에게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을 건너는데 조그만 배라도 있어야 건널 수 있지않느냐. 아무리 작은 뚝배기라도 가라 앉는데 하물며 사람이 가라앉지 않을 수 없다. 배를 타고 가자... 부처님 배를 타고 가자...” 그냥 갈 수 있는데 배를 타고 물위에 등 돌려서 간다는 겁니다. 이말은 뭘니까. 내 힘으로는 못가지만 부처님 힘으로 간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누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짓고 싶어 지은 죄는 없다” 고 했습니다. 모두 업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분들은 나쁜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미타불을 부르면 죄가 멸해지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분도 있었지요. 그러나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런 사람들이 긴가민가해도 극락세계 문턱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짓고 헤엄치기죠. 극락갈 수 있는 도리로 부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곧 돌아가시게 된 보살님들을 찾아가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극락갑니다” 하면 보살님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뭐 착한일 했다고 극락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일만 했어도 아미타불을 열하지 않으면 극락에 못가고 천당밖에 못가요. 사람이란 것이 받은 나쁘고 받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마음만 먹으면 천당에 가는 게 되죠. 그러나 나무아미타불을 열번만 부르면 극락에 갑니다. 극락은 죽음이 없어요. 이것이 부처님 법의 미묘함입니다. 부처님만 믿으세요. 옛날 이야기 일입니다. 이태조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요즘말로 는 쿠데타죠) 처음에는 왕족을 데리고 있다가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이되고 나서 중국왕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가는 사신마다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래도 자꾸 보냈습니다. 그 당시 불심이

“부처님께서 자비로 일체중생을 인도하셨듯 우리도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죠”

이예요. 조정승이 문기를 “신표라요, 무슨 신표일 겁니까 스님” 하니 세 스님이 말씀하길 “이 주막뒤에 돌 부처님 세분이 땅에 묻혀 있는데 부처님을 잘 모셔놓으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꿈에서 깨어보니 허망하게 느껴져서 급새 잇고 잠깐 조는데 또 세스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주저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조정승이 말하길 “제가 며칠만 있으면 죽으러 가는데 언제 절을 지어 모신단 말 겁니까” 하니 세 스님께서 “고을 원님에게 말만하고 떠나라”고 일러줍니다. 조정승은 아침에 일어나 고을 원님에게 세 돌부처님을 잘 모시고라 명하고 계속 열성을 하며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중국황제가 목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으면 모릅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이 하도 미묘하여 부처님만 믿으면 극락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극락에 갈 수 있도록 해준 부처님 은혜가 백골난망이지요.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어 모든 사람을 아들 딸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중생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중생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딱하니 앉아 자기가 생불이라고 절만 받으려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 스님들은 스님이 아니고, 고정도가 불교라면 불교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극락 갈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말씀드렸으니 모두 극락에 갈수 있었지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깊이 따르세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극락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생명역사 35억년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 진화 전과정 상주론과 단멸론 떠난 중도

로 남조류를 위시한 생명체들은 지구의 환경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던 방식으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생명의 역사는 이 단계에서 20억년 가까운 오랜 기간동안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된다. 그 이후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자. 약 16억년 전에 원생동물이 바다에 나타나고, 해면동물은 약 9억년 전에, 그리고 해파리는 약 7억년 전에 나타난다. 5억5천만년 전에 무척추동물이 나타나며, 그 후 해면동물이나 연체동물들이 번성하게 된다. 4억3천만년 전에 최초의 육상식물이 나타나며, 4억년 전의 바다에서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나타난다. 육지에서 처음으로 활동한 동물은 노래기 종류로서 그 시기는 3억9천만년 전이며, 어류의 후손이 육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3억5천년 전이다. 양서류의 시조는 3억8천만년 전에 나타나며, 그들이 육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3억3천만년 전이다. 파충류는 3억5천만년 전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며, 파충류의 한 종류인 공룡은 2억2천만년 전에



대중 불교 12월호. 부처님 말씀,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5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현대불교 편집국장 최정희 씨 / 김희균. 14 쇠북소리. 대통령과 무소유 / 김충철. 10 귀담아 듣고 새겨놓아. 전제성 교수의 제안에 대하여 / 이평래. 12 젊은 불자 발인대. 불기 2600년 사업 구상하자 / 이병두. 70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비지금 뒤에 올 환경피해 / 성낙진. 73 송년특집 불기 2539년 불교계 10대 뉴스 / 편집부. 37 방송. 국제. 복지. 불사. 교육. 단체. 운동. 문화. 사진. 출판 기획 / 개혁종단 1년 여전히 나누는 개혁의 길 / 유지호. 62 개혁종단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 유승우. 65 불교리산책. 선업과 불선업 / 정승석. 19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관리 / 용타. 22 수행으로 가는 길. 운회의 바른 이해 / 이제일. 26 신행상담.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함니까 / 상덕. 61 신화일련. 내 딸이 아주 재빠르구나 / 설산. 30 법당 이야기. 법당, 그 속에 깃든 의미 / 김원준. 74 예세이 보살불교. 아픈이들의 법약. 약왕보살 / 이지. 32 칼라화보 불교와 문화 / 김희영. 김성철. 53 양양 진전사터의 선림원터 / 김희균. 김성철. 54 포교의 현장.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이춘희. 80 수행길의 이련 도반. 허공을 담은 허공 스님 / 효림. 88 포교당 일기. 무녀가 된 '귀여운 여인' / 원옥. 91 한국 밖의 한국불교 세계적인 음악가 고 윤이상 씨 / 장용철. 48 만나고 싶었습니다. 화엄 40년 회고전 연 김보현 회백 / 이윤수. 84 봉주루로, 길상입니다. 현관문 자율식 보수기 / 지